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백일 되기 전에 과거에 살던 의식으로다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다 들어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태고기 중요하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도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것도 한군데다 물입을 해서 일신한 것처럼, 열 달이 돼서 으앙 하고 나오는 것처럼, 애가 어디서 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물어봐요. 한군데다 물입을 해서 열 달을 임신해서 어리엔 낳는 것과 같이 이 공부도 그렇다는 얘기도요.

법공양 페이지

생활속에 그대로 진리·부처님법 있으니

15면에서 계속

지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 사는 데가 따로 있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사는 데가 따로 있고 고기는 고기대로 사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집이 있듯이, 고향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 자기 동네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다가 잡이떠고 또 가다가 지쳐 죽어요. 왜냐하면 하도 잡았다 잡다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갈 만하면 또 잡혀요. 이렇게 해가지면 큰 고무통에다 담아 놓으니까 그게 호흡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절반은 죽게 되고, 그러니 물에 갖다 넣어놔서 살지 못하게든, 그러니까 아주 약인이 붙어있다가 그냥 말려죽이는 거지. 그게 방생이예요. 어디? 물에만 넣으면 다 사는 줄 알지 마세요.

람도 아주 진리리가 나면은 차라리 흥으로다 광 썩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극치적으로 괴로우면. 그런데 고기들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나를 한번만에 광 죽이지 어째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말려 죽이느냐고요.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별였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살고 세상 모두가 있는거지 누구한테 항거합니까”

사람이 사는 도리와 짐승이 사는 도리와 고기를 사는 도리가 다 같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러면서 이남까지 인간으로 형성이 됐는데, 알고보면은 내 몸속에 있는 생명이나 저런 데 있는 미생물이나 생명이 들어 아니어요. 낚시로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고기 잡는 맛에 남의 생명이 생가지도 않고 죽이게 되죠. 물론 어미어 마한 진리 속에 들어가보면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진리 그대로여서 아무것도 뭐 저거할 게 없지만요. 하지만 북이고 찢기고 고동받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진리는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살아 나갈 때 겪는 그 고통과 찢어지는 아픔과 죽음을 말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그 참,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봐도 아프고 불쌍한데 남의 생명을 잡아먹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에 살생하지 말라. 바로 네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니까. 벌어먹기 위해서 잡는거거나 또는 이왕 잡아서 파는 것은 혹시 부모님께 봉양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고기나 생선이니 그런 게 종종해서 팔이를 잡수시지만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렸습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살을 내 살같이 생각한다면 약으로 먹어야 이겨요. 그리고 그 무명을 쳐서 인도환생을 시키니 그건 살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도리를 알고 먹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죽 생각하기에 달린거죠. 그러나 모든 걸 놓고 먹어야 이겨요. 놓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일부러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굳이 죽이지 않고도 다른 길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꼭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죽여서 먹거든요. 모가지를 따서 피를 내먹거나, 이러한 고통을 주게되면 자기는 그걸 모르고 그랬다 해도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되어요. 내가 육법공양 여섯 가지에 대해 마치지도 않고 다른 얘기를 하지만요, 마쳤다고 생각하구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죠. 어느 아이가 불집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찢러죽였어요. 그런데 애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불집계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어떻게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전자에, 그 애가 지금 이 애를 그렇게 죽였더라구요. 썰매 꼬챙이로. 그러니까 이게 피파장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집에서 만약에 보상을 해라 될 해라 이런 다면 도루묵이 돼버려, 또 펜스가 또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죽인 건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야. 업보로. 그러니까 이것이 참, 이 공부라는 것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달마가 수염이 왜 없느냐고 그랬죠? (검지손가락을 들어보시며) 손을 하나 이렇게 번쩍 쳐드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대답을, 그건 말이 없이 내놓은 거기 때문에 말이 없이 대답을 해야돼요. 말을 할 수가 없는 도리가 때문이죠. 손가락을 하나 들었는데 그 손가락 하나 든 것 보고도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아침밥 먹었느냐?' 그랬을 때 '네, 먹었습니다.' '그럼 식기 닦았어?' 이런 말을 듣고도 깨우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깨우친 사람한테 또 물어보세요. '아침 공양했느냐?' 하고 물어본 '식기 닦았습니다.' 하고 미리 탁 이렇게, '식기 닦았습니다.' 이러면 벌써 말 할 것도 없죠, 그런. 여러분이 이제 들어 아닌 도리를 그렇게 배웠으니 조주스님이 머리 위에 짚신 한 짚 올려놓고 휘 나간 그 도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손가락 하나 든 도리도 알아야 하고요. 손가락을 들어 보시신, 구지스님은 그 비구니스님으로 인해서 깨우치게 되셨죠. 자기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가르치다니 이거 말이나 되는 일이라고 치는 바람에 그만 다 팽개치고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한 번 하고 주장자 한 번 탁 치는 데도 그 도리를 알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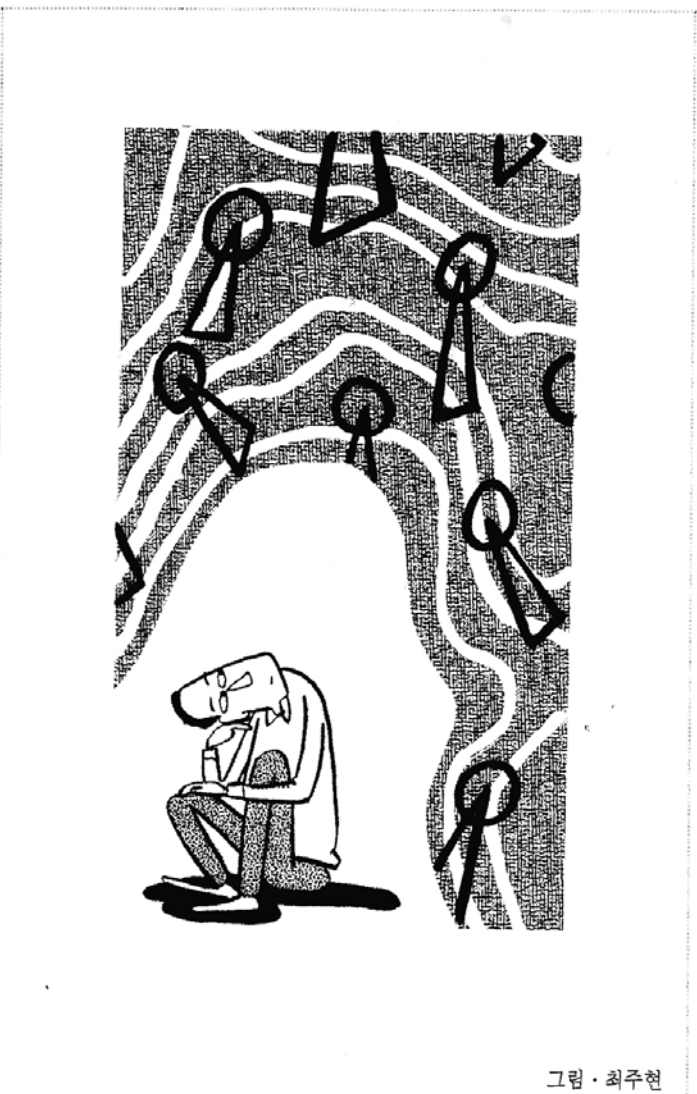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지만 불은 켈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잘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볼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지만 불은 켈 수 있다. 이진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짐승을 진화시킬 수도 있고 형성시킬 수도 있어요. 또 뱃속에 애가 잘못돼 돌아갈 때 그때도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기행이라고 그러냐? 병원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이유' 거는 거지말이야. 이렇게 마음을 안심시켜놓고 마음을 내면 그대로 그 속에서 알아듣고 다 자기가 정성으로 들어서서 활동을 해요. 영혼은 죽어서 혼백이 돼서 그 불성의 종자를 끼고 또 다시 영혼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백일 되기 전에 과거에 살던 의식으로다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도, 또 다 들어요. 뱃속에 있는 애한테 태고기 중요하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도요. 그러나 뱃속에 있는 태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것도 한군데다 물입을 해서 일신한 것처럼, 열 달이 돼서 으앙 하고 나오는 것처럼, 애가 어디서 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물어봐요. 한군데다 물입을 해서 열 달을 임신해서 어리엔 낳는 것과 같이 이 공부도 그렇다는 얘기도요. 이 마음 하나 찾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요. 이 공부는 어리엔을 뱃속에 열 달째 넣어서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다 물입해서 놓고 돌아가면은 정말 거기에서 큰 바다를 이루고 또 어리엔이 열 달이 되면은 나올 수 있게끔 성립이 된다는 얘기도요. 뭐 열 마디 백 마디 말은 다 말려놓고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진리고 그 진리가 부처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아 어디로 가는 것도 알 거 아니어요.

나도 없어. 그냥 그냥 쓴살같이 돌아가. 그냥. 수레가 돌아가듯 돌아가는데, 그 수레더러 '너 어떤 걸 수레라고 그러겠니?' 라고 묻는다면 '그냥 다 합친 게 수레야.' 이럴 겁니다. 아마, '합쳐서 돌아가는 게 수레야, 합쳐서 돌아가는 게 지구야.' 이럴 거라구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 살아나가는 게 다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세울 것도 없고 그런 도리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안되죠. 내가 어딴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진리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고 이러냐? 내가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체가 생긴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나.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통을 놓고도 모든 것을 돌아가면서 볼 때 이것이 사는 이

“생사 타파하고 자유권 얻어 세상 나지 않고도 수만가지 화할 줄 알아야 부처님이라 할 수 있죠”

고기·생선 내살같이 생각하고 먹으면 약이죠 마음 잘쓰면 벗어나고 잘못쓰면 못벗어나

하구선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모두 내탓인데...'. 당신도 마음 좀 내주려, 응?' 하면서 이렇게 화합하고 살아야 돈도 술술 들어오지, 그냥 그렇게 화로 풀고 파헤쳐 버린다면 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지금 세상엔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좀 가만히 보니까 전쟁하는 것 같애요. 아니 요즘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업을 해도 전쟁이고 정치를 해도 전쟁이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해도 전쟁이예요. 컴퓨터를 만져도 바이러스니 뭐니 들어와서 또 뭐가 없어요. 또 2,000년이 되니까 Y2K가 뭐가 어쩌고 하니 그것도 전쟁이고 모두 전쟁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산란한 속에서 자기안생을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고 가깝고가 없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죠. 한 생각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달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능히 할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은 능히 못하겠죠. 어떤 분은 이 도리도 완전히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와서 얘기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한테 말하는 데 이것은 천도재를 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래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입니다. 내 마음을 잘 쓰면은 그냥 벗어나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잘못 쓰면은 벗어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데 말입니다. 정말 조상들은 유전성으로 인해서 그냥 얹

히고 설치고 이렇게 된 집들도 많죠. 그런 중에 꼭 천도재를 돈을 내고 해야만 그 집이 관함이나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이끌어 가는 사람의 생각이요. 그런데 돈이 문제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도.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땅히 하부도 빠지지 말고 쓸어라 이런대거나 뭐, 이런 방편을 주죠. 또 어떤 분은 어디서 빌려서 급한 대로 가져왔는데 이걸로라도 해주세요. 한대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몰라가지고는 그거는 도저히 나를 이끌어 갈 수도 없고 남을 이끌어 갈 수도 없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천리만리도 멀고 가깝고가 없기 때문에 능히 할 수가 있죠. 한 생각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주저합니까. 한생각인데 달입니다. 한생각 먹기에 달렸는데, 한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능히 할 거고 지혜 없는 사람은 능히 못하겠죠. 어떤 분은 이 도리도 완전히 모르면서 그냥 덮어놓고 와서 얘기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나한테 말하는 데 이것은 천도재를 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래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그럴 땐 철저하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입니다. 내 마음을 잘 쓰면은 그냥 벗어나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잘못 쓰면은 벗어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에요.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으면은 회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영혼이나 그냥 끌고 가는 데로 끌려가서 아무 모습으로나 태어날 테니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래서 이 마음공부하는 분들은 나는 이 다음에 또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하겠다 또는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자각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조입니다. 그게 생사를 타파하고 모든 걸 타파하고 자유권을 얻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도 수천 수만 번 선택까지로 자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지장으로도 화하고 관세음으로도 화하고 칠성으로도 화하고 산신으로도 화하고 해신으로도 화하고 들신으로도 화하고 조왕신으로도 화하고 어느 거 아니 되는 거 없애 다 될 줄 알아야 그것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하 나의 마음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전부가 아니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어요. 우리들 사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느 거를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보는데, 하하하,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돌아가면서 다 봤는데 어떤 거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지를 놓고, 내가 항상 걸어다니는 데 어떤 발자국을 내가 때어놓고 다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고정된 게 있어야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한 게 하

치기 지구도 똑같고 우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구 안에 일체 만물만생이 사는 것도 우리 뱃속 안에서 생명들이 사는 거나 똑같애요. 지금 우리 육체 속에서 사는 생명체가 하나만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죽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그래서 터지면은 깨매고 그러잖아요. 지구도 어디 가장자리가 터질까봐 걱정이죠. 지구는 수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수습하기는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알아보면은 다 나온다 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예요. 우리 몸이나 지구나 뭐든지 망가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결을 할 일이 생기면 내가 열 명이라도 돼서 가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체가 없는 환상으로서, 환상이라고 그렇까 아니면 그냥 환상이면은 진실한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 투입을 하면은 그게 지구를 깨매는 의사가 되죠. 또 내가 다른 후성을 본다 하더라도 해안으로 보고 불안으로만 볼 줄 안다면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용할 거라면 사용해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그만 오늘 죽어도 그만 있다 죽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발휘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을까 하고 만날 생각해요. 지금 그렇게 못하면은 요 다음에 또 마무리 하느라고 또 해야하니 귀찮잖아요. 하려면 자기완성이예요. 일심으로 자기 완성하기에 오로지예요. 오로지! 어떻게 살든 오로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오로지 그렇게 해서 요 다음 생이 된다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풍요롭고 좋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 개구리 들어온 것이요 악성이라면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서 번창이 돼가지고 다른 걸 잡아먹는다면요? 악성도 그렇고 우리의 불종자도 그래요. 그렇게 번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천리만리라도 왕래가 되거든요. 그림, 자타가 모두 성불합니다.

합친 한마음선원 신도회